

건강한 속사람 IV.

마음이 지치거나 날카롭게 거칠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분노를 조심하십시오.

1. 세상속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세상인지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구조와 가치관은 교회와 분명히 다르다. '다름' 이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충동을 피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 영향을 더 받는 쪽이 움직이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1) 경쟁사회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경쟁사회' 라 말할 수 있다. 경쟁사회의 핵심은 '성과'에 있고, 성과를 이루기 위한 '성취'가 목적이 된 사회를 말한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세상이다. 모든 사회적 기반이 성과의 기초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좋던 싫던 현대인들은 '성과'를 내야한다. 그래야 성과사회가 제공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떤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없다. 뒤로 쳐지고 낙오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불안해한다. 이 불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가중된다.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것이다. '경쟁'하는 이유도 모른 채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성과의 보상위에 살아간다. 경쟁사회는 '긴장감의 공기'로 가득하다.

(2) 내면의 망가진 성품들

팽팽한 긴장감(텐션) 은 결국 고무줄이 지니고 장력의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팽팽하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안에 가득하다. 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계속 '힘'이 가해진 상태를 말한다. 그 힘은 다른 곳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팽팽한 장력'속에 계속 쌓여만 간다. 경쟁사회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내면에 쉼과 안식이 없다. 항상 긴장하고 있다. 그 긴장감은 쉬어도 쉼 것 같지 않다. 긴장된 내면은 안식과 돌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칠어지게 된다. 그리고 날카로워 진다. 그렇다면 왜 이와같은 일이 생기는가? 기독교는 오늘날 현대 사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또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며, 그 원인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3) 영적원인 - 바벨탑

[창세기 11:3-4]

3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4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인간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근원이 있다. 바로 '에덴동산' 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죄를 짓기 전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장 행복한 존재였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의 삶은 어려움, 불안, 두려움과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망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인간의 처방은 '외적인 일'에 대한 성취였다. 내면이 망가졌는데 인간은 해답을 바깥에서 찾았다. 그것이 바로 '성과'이다. 인간에게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다. 이런 인간의 솔루션이 바벨탑이다.

‘바벨탑’은 인간이 이루어야 할 ‘성과’를 상징한다. ‘보여지는 목표’라 말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그릇된 신념이었다. 그래서 탑을 쌓아 올렸다. ‘단계별로 성과’를 이루어 갔다. 그 성과에 만족했다. 이런 바벨의 문화는 모든 것을 ‘부어내고 쏟아내는 문화’이다. 모든 것을 부어 성과를 만들어갔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갈 뿐이었다. 그리고 단계별의 성과가 높아질수록, 나의 존재감은 반대로 감소 되었다. 탑이 작았을 때는 쉽게 내가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나, 탑이 높아지고 거대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바벨탑이 주는 엄청난 ‘아이러니’이다. 결국 바벨의 문화는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탑이 높아지고 거대해질수록, 돌보지 않고 쏟아 붓기만 하는 인간의 속사람은 망가져갔다.

(4) 현대사회를 향한 진단 - 관계불능자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는 바벨의 문화는, 결국 인간을 바벨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게 만든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고귀한 인간을 바벨탑을 이루는 벽돌의 일부로 여기게 만드는 세상이다. 노동의 신성함이 줄어드는 세상이다. 노동해야 하는 가치를 잃게 하는 허무한 세상을 말한다. 높이 쌓아 올라가는데 끝이 없기 때문이다. 기약 없는 노동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멈춤이 없는 성취의 뿌리는 욕망이다. 욕망과 욕심은 죄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 성취의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멈출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정체성은 ‘관계’를 하는 존재를 말한다. 관계의 주체가 서로 존중되어지고,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관계이다. 관계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 관계 그 자체이다. 이미 목적을 두고 관계하기 시작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다 (목적과 함께 하는 것은 계약이다). 표면적으로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지만, 현대인의 내면은 어느 때보다 심한 고립감과 단절로 괴로워 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크고 작은 관계로부터 온다.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 그 내면이 이미 자신이 만든 성취의 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5) 진정한 소통이 없는 현대사회

[사무엘상 22:1-2]

1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2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사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던 다윗 왕국의 시초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해 보라. 그 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곳에서 다윗왕국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문제있는 그들 모두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통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의 문제가 초창기 때 얼마나 많았는지 알 것이다. 그런 문제에 있던 제자들을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만드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 또 제자들끼리, 그들의 문제가 녹아지는 소통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면의 소통의 결과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로 나타났다. 코이노니아로 하나 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은, ‘단절’이 아닌 서로가 존중되는 ‘소통’의 공동체였다. 소통은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이다.

사탄의 전략은 ‘분리’와 ‘단절’이다. 분리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립된 상태를 말한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 광야에서도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아말렉 족속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2. 내면을 지키고 평안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1) 거칠어진 마음을 다스리라.

경쟁사회 속에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긴장하며 내면이 거칠어지고, 민감해지게 된다.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굳어지면 결국 부러진다.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속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바리새인을 보라. 바리새인의 위장된 겉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단단함과 긴장으로 표출된다. 그들의 굳은마음, 거친 마음은 '분노'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약점, 비판, 시험거리를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죽였다. 그들의 겉은 거룩해 보였어도 그 마음은 거칠었고, 분노로 가득했다는 것이다.

사울도 마찬가지이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의 속사람이 완전히 무너진다. 평정심이 깨지는 순간 사울은 거칠어졌다. 결국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진 사울의 마음은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분노로 표출되었다.

(2) 통제되지 않은 마음의 마지막은 분노이다.

분노는 왜 생길까? 연약한 속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 분노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생겨난다. 분노는 자신을 위협과 상처로부터 지키려는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다. 연약함과 상처는 결핍으로부터 온다.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결핍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 없다. 온전한 주님과 친밀감의 회복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온전한 주님과 교제로 인한 지속적인 치유가 상처 치유이다.

(3) 마음을 지키는 대안

ㄱ.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틈을 조심해야 한다. 강력이 지속으로 마음에 가해지면 틈과 균열이 생긴다.

ㄴ. 유연성을 확보하라.

단단하면 결국 부러진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인한 유연성이 마음안에 있어야 한다.

ㄷ. 성령의 '절제'의 은사를 사모하라. (갈라디아서 5:23)

성령의 열매는 부족한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그러므로 내면안에 절제(자기통제)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갈망이다. 지속적으로 내면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구하며 갈망해야 한다. 그렇게 성령 앞에서 내 마음이 비추어 질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ㄹ. 조력자가 필요하다.

다윗도 나발의 도발로 평정심이 무너졌다. 바로 그 때 아비가일의 중재로 다윗의 화가 제어되었다. 내 주변에 나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중재자와 영적 아비(지도자, 멘토)가 있어야 한다.